

▶ 우리병원을 소개합니다

부산대학교병원 산부인과학교실을 소개합니다



김기형
부산의대

인사 및 소개

부산대학교병원은 1959년에 설립되었으며 부산지역 암센터, 권역외상센터, 동남권역호흡기전문질환센터를 포함하여 6개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8년도에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정식 개원하였으며 이어 어린이병원과 한방병원이 성공적으로 개원하였고, 더불어 영남권역재활병원까지 포함한 총 5개 병원과 2,800여 병상을 보유한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으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 설립과 함께 7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본 산부인과학교실은 부인암클리닉, 난임클리닉, 모체태아집중 치료실을 설립하여 최고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전공의를 선발하여 우수 산부인과 전문의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현재까지 180여명의 산부인과 전문의를 배출하였고, 더불어 각 임상 분과별로 전임의를 선별하여 분과별 전문 의료인력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현재 9명의 교수진과 9명의 전공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수한 인적 자원과 진료 시스템을 바탕으로 연간 외래 환자 49,000여명, 입원환자 32,000여명, 수술 및 시술 3,300여건의 진료를 활발하게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진료 이외에도 연구 및 학문에도 힘쓰며 각종



해외 및 국내 학술지에 연 20편 가량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으며,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을 통해 매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대학원 의학과 산부인과학 전공 석사 및 박사 교육을 책임지며 현재까지 150여명의 석사 및 130여명의 박사 학위 수여자를 배출하는 등 학문적 성과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인종양학은 명예교수이신 윤만수 교수의 공헌으로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1988년 일본 구주대학에서의 연수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부산지역암센터 소장을 역임하면서 교실의 발전뿐 아니라 병원의 발전에도 큰 이바지를 하였습니다. 현재 주임교수로 재임 중인 김기형

교수는 2006년부터 2년 간 미국 예일대학에서의 연수를 시작으로 현재 부인암에 대한 줄기세포 및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설립과 함께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의 진료와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부인종양분과의 송용중 교수는 2018년부터 미국 H. Lee Moffitt

Cancer & Research Institute에서 연수 중에 있습니다. 양 병원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앞으로 임상 및 연구를 접목하여 부인암에 관한 새로운 진단 및 치료법을 발전시키고 분자유전학적 진단 및 표적치료 등의 환자 맞춤형 치료에 큰 진보가 예상됩니다.

진료

본 산부인과학교실은 2009년부터 부산지역암센터 내 별도로 부인암클리닉을 설립하고 진료를 시행하여 연간 평균 부인종양 외래 진료 20,000건의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간 누적 8,717명의 3대 부인암 환자 (2,226명의 난소암, 4,804명의 자궁경부암, 1,687명의 자궁내막암) 진료를 담당하고 있어, 국가암정복사업의 명실상부한 지역거점기관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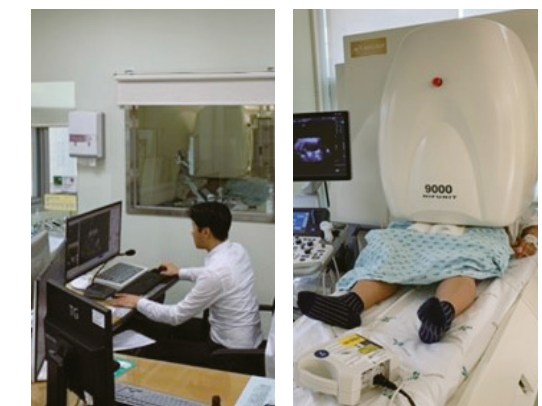
2018년부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진료 현장에 활용하고 있으며 부인암 환자는 각 분야의 지식과 기술 및 경험을 축적한 우수한 의료진과 함께 인공지능 다학제 진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환자 진단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거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최상의 치료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효과적인 환자 관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운영 중인 로봇수술센터를 통해 주요 부인



암 및 일반부인과 수술에 있어 안정된 수술 성공률 및 수술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인종양분과에서 400여건의 성공적인 증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17년부터는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에 대하여 집속초음파치료(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HIFU) 시술을 도입하여 비수술적, 비침습적 접근법으로 보다 폭넓은 치료방향을 환자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본 산부인과학교실은 2019년 2월 현재 1년차 3명, 2년차 2명, 3년차 3명, 4년차 1명으로 총 9명의 전공의가 소속되어 있으며 '건전한 인격과 확고한 윤리관을 가진 지역사회 산부인과 전문의 양성'이라는 교육목표 하에 만족도 높고 체계적인 수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는 입국과 함께 관심있는 분야의 교수진에 일대일로 배정되어 초기 연구 주제 선정부터 연구 설계 및 논문진행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의국원들이 모여 연구논문의 중간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연구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구의 지속성이 유지되고 전공의 시기부터 장기간 연구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진행해보는 경험을 쌓아 향후 임상연구의사로서의 소양을 기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전공의는 병원의 지원을 받아 본인의 연구 결과를 해외학회에 참석하여 발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연구에 동기 부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수진과 전공의 간의 팀워크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연구

본 산부인과학교실은 적극적인 연구 마인드로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 영남 지역 컨소시엄인 PIKO (부산대, 인제대, 고신대, 울산대)를 구성하여 정기적 미팅을 갖고 연구 의견과 임상 정보 교류를 통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양질의 중요한 연구결과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교실은 임상 연구 이외에도 중개 연구를 위한 자체 실험실을 구축하여 2명의 전문 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

으며 2019년 현재 3개 국책 과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는 크게 2가지 테마를 진행하고 있으며, 첫 번째는 암줄기세포의 조절에 관련한 유전자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메커니즘 연구를 통해 난소암 재발과 항암제내성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바이오 플라즈마 기술을 자궁경부암과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병증에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고 최적화하여 임상적용을 위한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본 부산대학교병원 산부인과학교실 부인종양분과는 부산지역 부인암 치료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암 극복을 위해 헌신하여 부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춧돌을 놓겠다는 의지와 열정으로 가득찬 곳입니다. 전문적인 암 치료와 더불어 암 검진,

암 예방 및 교육, 연구 사업 등 지역민의 다양한 암 관련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에 부응해 명실상부한 부산/동남권 부인암 치료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영남지역 부인암 치료의 중심에 서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